

# 북

## 죽는 날까지 나는 공부를 멈출 수 없다

### 공부

#### 김열규 지음



김열규(78) 서강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공부 인생기를 담은 '공부·김열규 교수의 지식 탐나기'를 출간했다. 2008년 독서에 대한 생각을 쓴 저서 '독서·김열규 교수의 열정적 책 읽기'와 짹을 이루는 책이다.

김교수는 책에서 시골의 와톨박이 꼬마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공부에 대한 인연과 자신의 글 읽기와 쓰기 원칙을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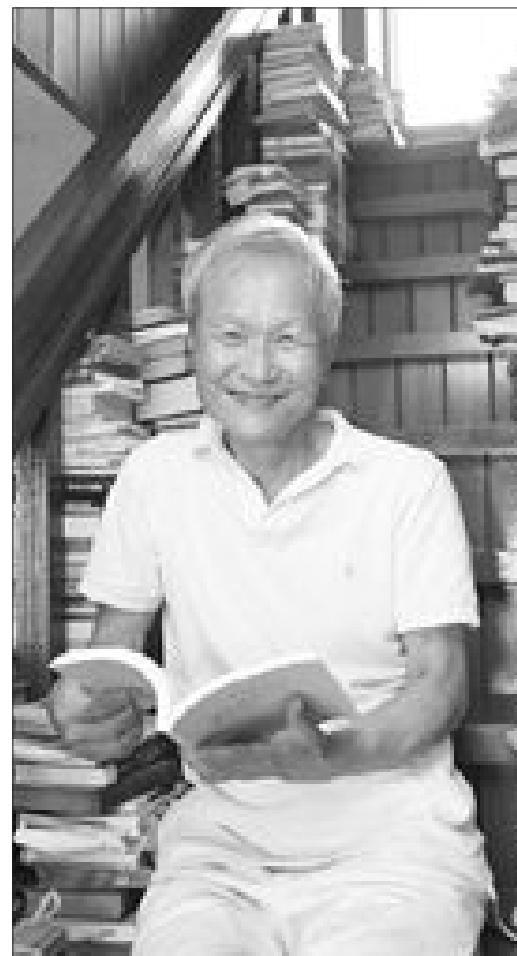
"이바구 뱃바구 강떼바구 옛날, 옛날, 한 옛날~"로 시작하는 첫 공부 습습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부터 국문학의 세계로 안내해준 시 문학의 가르침까지, 공부와 함께한 70여년의 삶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했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핑거까지 진화한 공부의 유래와 특징을 1~2장에 담았고, 장르별 읽기의 역사와 비판적으로 글 읽는 법, 글쓰기의 기초와 논리적으로 글쓰는 법 등 공부 기법을 각각 3, 4장에 나눠 실었다.

또한 5, 6장에서는 끊임없는 인생공부를 통해 자신의 일에서 마이스터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21세기 IT와 글로벌리즘 시대에 공부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70여년간 글 공부와 인생공부에 흔쳐온 학자의 이야기와 경정할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김 교수는 공부(工夫)를 '머리라는 도구를 써서 일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풀이했다. 불완전하게



김열규 교수는 "온 나라가 교실과 공부방으로 변했다"며 "옛날에는 가난에 굶주렸지만, 요즘은 영혼이 굶주린 사회가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비아북 제공>

태어난 인간이 머리를 싸매거나 쥐어 짜 자연과 세계, 사물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존재가 되는 '중노동'이라고 말한다.

김교수는 "원래 공부가 수신의 의미가 강조된 것인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입신이 더 중요해져 떠올

다"며 "개인의 진학과 취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진하느라 수신을 위한 공부를 계율이어서는 안되고, 우리 스스로가 교양과 영혼을 돌보지 않고 현실적인 이해득실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인간 포기'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현 세대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

또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일상과 관련, 모바일 정보가 책이 차지했던 자리와 역할을 맡는 "21세기의 또 다른 브네상스"라고 평가하면서도 "공부는 언제 어디서나 속도와 기동성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끈기와 즐기침이 공부에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국내 한국학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는 김교수는 이순이 되던 1991년 고향인 고성으로 낙향, 해마다 한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고 수십 차례의 강연을 해오고 있다.

특성화 대안학교인 지리산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글쓰기 특강을 하고 있다.

이렇듯 팔순을 앞두고 그의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은 쉽 없는 공부의 산물이다.

"이제 팔순을 앞둔 나이가 되어 일선에서는 물려났지만 주쁜 들판에서도, 파란 바다에서도, 아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 나의 공부는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한 내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은 나날이 늘어만 간다. (중략) 죽는 날까지 나는 공부를 멈출 수 없는 것 같다"에필로그 중)

노(老)학자는 이제 공부가 '목숨을 부지하는 이유'라고 깨닫기 시작한다. 공부를 통해 자연과 사물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가 공부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은 늘 새로운 내일을 만들고자 공부하는 이들에게 '교본'으로 권장할만하다. <비아북·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책

▲ 36.52=가족 이야기를 주로 썼던 '아버지'의 작가 김정현씨의 신작소설. 놀루치 않은 세상살이를 견디는 중년의 세 남자와 세 여자가 힘겹게 지켜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온도로 나누는 사랑과 우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중년남자의 자아 찾기이자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독특한 시선의 작품이 <역사와사람·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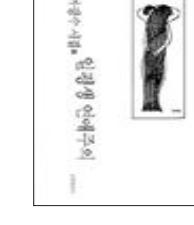
다.



▲ 지(知)의 정원='진정한 교양'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한 책이다. 탐사 저널리스트로서 박학다식을 자랑하는 다크바나 다키시와 외교관 출신으로 경직된 관료조직과 국가권력에 저항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논객 사토 마사루가 만나 우리가 왜 독서를 해야 하고, 21세기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양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문·1만3500원>



▲ 나는 어떻게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나=여행기 '기발한 세계일주 레이스'로 주목받았던 스티브 헬리의 첫 장편소설. 애인의 변심 때문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유명작가가 되겠다는 풋내기 작가가 지망생이 된 소설을 집필하여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쓰기에 관한 소설'이다. 베스트셀러와 문학, 출판계의 현실을 재치있게 비꼬며 통쾌한 웃음을 던진다. <중앙books·1만2000원>



▲ 한평생 연애주의=마광수 연세대 교수의 산작 시집이다. '감상(感傷)과 퇴폐(颓廢)'가 내 시의 영원한 화두"라고 말하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도 '나는 혼돈 여자가 좋다' '정신적 사랑은 가라' 등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시 60여 편을 내놓았다. <문학세계사·1만1000원>



▲ 갈보 콩=농촌의 삶을 다룬 소설을 꾸준히 발표한 이시백 작가가 농촌을 배경으로 쓴 단편을 묶은 소설집. 외국 작물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멎을거리 문제를 비롯해 사료와 품값의 폭등과 수입 소고기로 인한 낙농인의 절망을 담은 '위낭소리', 노동로 골프장 터로 팔고 골프장에 기생해 사는 농민들의 이야기인 '몰입' 등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다룬 11편을 수록했다. <실천문학사·1만1000원>

한평생 연애주의=마광수 연세대 교수의 산작 시집이다. '감상(感傷)과 퇴폐(颓廢)'가 내 시의 영원한 화두"라고 말하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도 '나는 혼돈 여자가 좋다' '정신적 사랑은 가라' 등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시 60여 편을 내놓았다. <문학세계사·1만1000원>

### 포기 않으면 기적 일어나

### 희망 되찾기까지 삶 여정

전신 3도  
화상, 9년  
간 30번이  
넘는 수술  
과 재활치  
료를 이겨  
내고 삶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지선(32)  
씨의 에세이 '다시 새롭게 지선  
아 사랑해'가 출간됐다.

책은 2003년과 2005년에 출간된 '지선아 사랑해'와 '오늘도 행복합니다'의 개정합본판이다. 삶, 고난, 기적, 감사, 사랑, 희망 등 두 번째 삶이 그에게 가져다준 여섯 가지 선물이라는 테마로, 기막힌 운명과 화해하고 희망을 되찾기까지 그녀가 발견한 삶의 비밀들을 잔잔하게 나누고 있다.

삶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입이 아닌 몸으로 보여준 그의 이야기는 더욱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문학동네·1만3800원>/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완벽한 가격

#### 엘렌 러펠 셸 지음



대형 할인매장 인근 주택가에서 산 적이 있다. 인근에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던 터라 주말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들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험버거를 먹이고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쟁겨주는, 두부나 무 같은 식료품 심부름을 하는 수준의 주말 쇼핑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괜찮아(?) 보이는 등산화를 삼갔에 샀다는 승리감을 맛본 후 나의 소평목록은 짹통 시계, 열쇠고리, 손전등, 자동차 용품 등으로 그 종류와 수를 늘려 갔다. 싸구려 제품들은 금방 뜯쓰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제품들에 대한 욕망은 줄지 않았다. 그리고 창고에는 한번 쓰

### 가난을 먹고사는 할인 산업의 불편한 진실

고 버린, 누구에게 줄 수도 계속해서 쓸 수도 없는 이런 물건들이 하나 둘 쌓아가기 시작했다.

'싼 게 비자체'인데, 왜 그렇게 싼 가격에 열광했던 걸까. 미국 보스턴대 과학저널리즘학 교수인 엘렌 러펠 셸이 쓴 '완벽한 가격'(원제·CHEAP : the high cost of discount culture)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 충분했다.

저자는 대형 할인점의 할인 상술에 의해 품질보다는 가격이 상품 구매의 최우선 조건이 돼 버린 현실을 추적했다.

싼값의 이면에 좌리를 튼 진실은 불편하다. '싼값'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소비자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구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더 싼 제품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은 해외 싸구려 제품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점진적인 붕괴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괜찮아(?) 보이는 등산화를 삼갔에 샀다는 승리감을 맛본 후 나의 소평목록은 짹통 시계, 열쇠고리, 손전등, 자동차 용품 등으로 그 종류와 수를 늘려 갔다. 싸구려 제품들은 금방 뜯쓰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제품들에 대한 욕망은 줄지 않았다. 그리고 창고에는 한번 쓰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초대형 유통업체들은 더 낮은 가격을 위해 더 저렴하고 순종적인 근로자들이 있는 나라에서 제품을 가져온다. 노동력 착취다.

대형 할인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도 허구다. 가난한 사람들은 할인점에서 내구성 없는 소비재들을 부자들보다 2배나 더 많이 구매한다. 장기적으로 따지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이 소비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셈이다. 여기서 할인산업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할인산업을 키우는 도덕적 모순이 발생한다.

언제까지 싼값의 유혹에 넘어가야 하는 걸까. 할인점 공세로 골목상권·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저자가 던지는 물음이다.

<랜덤ха우스·1만6000원>

/김주정 어른매체부장 jnews@kwangju.co.kr

해 화제가 됐다.

▲ 여행의 재발견. 구석구석 마을여행 편집자 청산도 당리, 삼베길쌈 솜씨를 염불 수 있는 안동포마을, 300년 된 요리를 맛보고 만들 수 있는 양영두들마을 등 매력이 넘치는 한국의 마을들을 소개했다. 각 마을에는 '놓치면 아까운 주변 여행지'와 주천일정을 함께 실어 알차고 즐거운 여행을 돋운다. <팜파스·1만5000원>



▲ 인생연주비법 음악레슨=그레이미상을 다섯 번이나 수상한 전설적인 베이비스트 브리 우튼이 음악을 연주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한다. 음악이 어떤 존재이고 음악적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소설 형식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다. 작곡가이자 가수 윤상이 배우 출신 아내 신혜진씨와 함께 번역 <한타워스·1만3000원>

### 대인동삼일부동산

### 현대공인중개사

#### 좋은 자리에 상가

#### 건물을 싸게 사실분

####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①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상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 매물통 존 공업지역

② 광교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 광교 간 도로변 대지 매매

③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개발공사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 ▶ 연제동 178㎡(53평), 2층, 교환 가능, 조밀권 양도 앞에 서해비단가 펼쳐있음

#### ▶ 마포동 대로변 토지 매매

④ 지하철 시름실 뒤면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매매가 7억

#### ▶ 박진동 창고, 공장부지

⑤ 박진동 69㎡(2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⑥ 신수동 174㎡(52평) 매도가 1억8천만원

#### ▶ 박주동 645㎡(195평), 649㎡(196평) 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 ▶ 나주 남 평 토지 매매

⑦ 풍리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변, 임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천만원

#### ▶ 건물 매매

#### ▶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⑧ 신촌동 대지 278.5㎡(84.2평) 건물 662㎡(200평)

1층 2개, 2층, 3층, 4층, 원룸, 투룸, 매매가 7억8천만원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손금

#### ▶ 상가 및 목재상 매매

⑨ 신촌동 대지 367㎡(110평) 건물 1233㎡(373평)